

나눔·지역상생 앞장선 현대삼호중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국무총리 표창

‘세월호 사고’ 급식·예민선 등 지원...복지시설 꾸준히 후원

현대삼호중공업(대표이사 하경진)이 지난 9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2014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시상식’에서 ‘인적나눔부문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 4월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직후 지역 최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회사 임직원 등 연인원 2500여 명이 참가해 무료 급식과 모포·우의 배포, 접수부·예민선 지원 등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펼쳐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 2002년부터 사회복지시설 후원과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지원, 백혈병 환아 돕기, 1사1촌 마을 자매결연 및 봉사활동, 회사 인근 마을 방역활동 등 지역사회에 다양한 형태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메세나 활동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목

포시와 공동으로 연평균 5~6편 정도의 대형 공연을 유치했으며, 현재까지 약 2만 5000여 석의 입장권을 지역 복지시설 등에 기부하기도 했다.

특히 2011년부터는 사내 임직원 200여 명으로 구성된 ‘행복약속 봉사단’을 조직해 인근 마을을 찾아가 주거환경 개선작업과 경로잔치 등 종합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합창대회와 어린이 축구대회, 게이브볼 대회를 개최해 지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현대삼호중공업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함께하려는 노력을 인정받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에 행복을 주고 사랑받는 기업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남=문병선기자·대성수기자 dss@



지난 9일 열린 ‘2014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시상식’에서 인적나눔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현대삼호중공업 주정식(왼쪽) 총무부장과 사회공헌팀.

전북 소식

전주시 18일 ‘태조 이성계 어진 봉안행렬’

노송광장~팔달로~경기전

조선왕조를 창건한 태조 이성계의 어진(왕의 초상화·사진) 봉안행렬이 오는 18일 전주시 노송광장~팔달로~경기전에서 재현된다. 이 행사는 1688년(숙종 14년)에 태조의 어진을 새로 그려 경기전에 봉안하는 행렬을 재현하는 것으로 지난해 고증을 마쳤다.

200여명이 참가하는 행렬은 전라감사가 전체 행렬을 호위하며 선두에 서고 그 뒤로 신어(神輿), 향정자(香亭子), 전부고취, 금난포수, 신연(神簾), 후부고취, 대축, 참봉, 도제도, 후사대 등으로 순으로 진행된다.

태조의 초상화인 이 어진은 국보 317호로 가로 150cm, 세로 218cm 크기의 비단에 그려져 있다. 처음에는 총 26점이



있었으나 현재는 전주 태조 어진이 유일하다. 경기전에서는 어진을 봉안하는 의식인 봉안례도 선보이며, 이때 일반인들도 헌화·봉축할 수 있다.

/전주·부안=강철수기자 knews@

나주 영산고, 산림청 주관 ‘전국 학교숲 조성분야’ 우수사례 선정

올해 수목 4000그루 심어

학생 정서 발달·지역민 섬터

산림청 주관 2014년 전국 학교숲 우수사례 공모에서 나주 영산고등학교가 학교숲 조성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학교 숲은 자리나는 학생들의 정서 함양

과 지역민들의 쉼터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는 도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2003년부터 127개 교에 조성돼 왔다. 올해는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나주 영산고 등 9개 교에 학교 숲을 신규로 조성했다.

이번 공모는 학교 숲 신규 조성과 사후관리 분야로 나눠 실시됐다. 전국에서 총 25개교(신규조성 14 사후관리 11)가 접수

해 신규 조성 5개교, 사후 관리 2개교를 우수 사례 학교로 최종 선정됐다.

나주 영산고는 6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삭막한 담장 밑 모퉁이 공간에 느티나무, 아팝나무, 산철쭉 등 4000그루 이상의 수목과 편의시설을 갖춘 것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남도는 교사·학생들의 학교 숲에 대

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2015년 1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17개 교에 학교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조성된 학교 숲을 이용해 초화류를 학생들과 함께 심어 가꾸고, 나이에 재기, 수생식물 관찰하기 등 다양한 숲체험 프로그램 함께 운영하기로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양시 새마을금고 부지매입 관련 검찰 본격 수사

일부 회원 지난달 진정서 제출

이사장 지점 신설 문제점 조사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이 광양시 새마을금고(이하 금고) 부지매입 관련 의혹(광주일보 2014년 9월 30일 13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달 30일 진정서를 제출한 금고 일부 회원들을 이번 주 중 진정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금고 일부 회원들은 ▲지난해 10월 열린 이사회에서 광양읍 지점 신설 부지와 건축신축 예산(70억원)안을 상정해 승인한 과정이 정당하지 ▲지점 신설부지 매매

계약을 왜 두 차례(지난해 10월과 올 5월)나 했는지 등에 대해 철저하 수사해줄 것을 검찰에 진정했다.

광양시는 매매계약과 관련, 실거래신고 누락 등을 살피기 위해 필요한 절차에 따라 서류 검증작업을 벌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금고 일부 회원들은 지점 신축건물 설계사와 건축 공사사 선정과정도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다는 의혹을 새롭게 제기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통상 모든 입찰은 전자입찰 공고를 내고 각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하지만 광양시 새마을금고는 30억원이 넘는 건축공사사 선정 입찰시 서류심사

후 지명업체에 한해 입찰에 참여하게 했다.

또 입찰 참가자격을 전이나 동부권이 아닌 광양시, 순천시 업체로 제한한 것은 물론 특허공법을 낸 모 건설사와 특허협약 사본을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낙찰이 상실했다는 단서를 입찰공고에 삽입했다.

지점건물 건축설계사 선정 역시 공고를 내지 않고 5000여만원에 계약하고, 지하 주차장을 추가 설계변경해 3000여 만원을 또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회원들은 “금고 B 이사장이 2013년 1월 금고 정기총회 사업계획 보고서 당초 목욕탕 설치사업 목적으로 70억원 예산을 승인받았지만 목욕탕 사업 추진이 실패하자 이사들에게 광양읍지점 신설에 대해

공지하지도 않고 곧바로 이사회에 상정해 지점 신설사업을 밀어붙였다”면서 “이는 원천적으로 절차상 문제가 있어 승인 무효”라고 주장했다.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18조 1항에는 매년 사업계획과 예산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해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금고 관계자는 “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모든 사업을 추진한다”며 “부지 계약서와 이사회 회의록 등은 언론에서 열람할 수 없고, 회원 일부가 진정서를 제출했으니 검찰이 밝힐 것 아니냐”며 취재를 거부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김생기 정읍시장 ‘지역농업발전 선도인상’

김생기 정읍시장이 지난 8일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농협중앙회 주관의 ‘지역농업발전 선도인상’을 수상했다.

“지역농업발전 선도인상”은 농협중앙회가 전국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지역농업과 농촌발전,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지자체 10곳을 선정해 지자체장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김 시장은 전국 최고 수준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과 조사료 생산면적(5000ha) 확대 등 ▲농업인과 함께 소통하는 농업행정 추진 ▲FTA 대응 농업 경쟁력 강화 ▲농촌활력 정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시장은 시 발전 기금으로 수상한 500만원을 정읍 시민장학재단에



기부했다. 김 시장은 “민선 6기에도 농업·농촌 분야에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농업인과 공무원들이 합심해 살아가는 농업·농촌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부안군 ‘21주기 서해훼리호 참사 위령제’

1993년 ‘서해 훼리호’ 침몰 사고로 숨진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21주기 서해훼리호 참사 위령제’가 지난 10일 부안군 위도면 전리마을 위령탑 앞에서 열렸다. <부안군 제공>

SD메디컬 빌딩임대

양산사거리 최고상권!

지하 주차장 시설완비 엘리베이터 2기 운용(대형,중형)



- 6층 98평 병의원 및 사무실
- 3층~5층 각층 124평 병의원 및 사무실
- 1~2층 임대완료 레스토랑,약국,다이소
- 지하1층 주차장

SD메디컬 빌딩

용두주공 양산타운 APT APT

첨단대로 롯데리아 국민은행

건물관리 유경철자 모진 연령 50세 이상

문의 : 010-8625-1131(분양사무실)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매·교환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감정가이하

- 화정동 터미널근대지 661㎡(200) 7층 건물 245㎡(741) 은행 15억 전세 4억 이상 월 1500선 수매매도 23억
- 담양군 대덕면 산 236132㎡(71430) 공시지가 9천 매도 1억7천
- 금남로 가구점 대지 416㎡(126) 공시지가 12억7천 은행 8억 매도 11억
- 계림동 준주거 대지 799㎡(242) 5층 건물 1610㎡(487) 김평 14억 5천 은행8억3천 사육 등 적합 교환가능 10억
- 금남로 4가 대로 대지 317㎡(97) 건평 1235㎡(363) 공시지가 14억 매도 14억5천
- 전원주택(개발제한) 화순군 동면 임야 126908㎡(38390) 공시지가 6억6천 화순 군청에서 15분 거리 도로연결 좋은 10억

투자 / 매도 / 교환

- 쌍촌동 대지 198㎡(60) 건물 453㎡(137) 1층은 기계와 인직 원룸 15개 5억 2천
- 쌍촌동 신축건물 대지 215㎡(65)건평 418㎡(126) 안림과 월동 5개 부록 4개 대출1억5천 매도 6억4천
- 모듬, 담양 대지 978㎡(296) 객실 24개 은행 3억7천 매도 5억천
- 충장로5가 4거리 코너 대지 272㎡(87) 건평 493㎡(149) 8억2천
- 쌍촌역 고시원 대지 272㎡(87) 건평 493㎡(149) 보증금 3천만원에 월 490만원 선 수익 노후생활에 적합 5억2천만원
- 편백나무산 장성군 삼계면 36099㎡(10900) 1억2천
- 보상받을 토지 순천시 상사면 담960평 공시지가 2100 매도 2300
- 진월동 호반아파트 옆 대지 201㎡(61)대출 7500 매도 1억8200
- 광산구 하산동 대지 1213㎡(367) 대출 9천 교환 1억5천
- 영산포와 영암간 도로전 사당 대지 1053㎡(318) 건물 266㎡(80) 영암점원 상가 주택과 교환 1억5천

임대

- 쌍촌동 기도 생활주택 전세면 234㎡(71) 오락실, PC방, 생활주유 등 다용도 보증금 5천에 월 220나 타워해서 조정함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쌍촌동 (구) 등기소 자리, 기도 생활주택 전세면

바닷가 전원주택지

완도군 고금 해룡리 남향 바닷가 조망원룸용 전원주택지

- 지역 : 생산관리지역 등
- 지목 : 전
- 면적 : 7,670㎡
- 매가 : 3.3㎡ 당 12만

토지 임대

화정동 대로변에 접한 토지. 모델하우스 및 대형 전시관 최적.

- 지역 : 준주거지역
- 지목 : 대
- 면적 : 3,215㎡
- 매가 : 협의

투자 만 점(지산동)

전원주택, 사찰부지 등 최적!!! 동일 조건에서 더이상 싼 땅은 없습니다!!

- 지역 : 주거 및 보전복지지역 (도로 접)
- 지목 : 전
- 면적 : 3,716㎡
- 매가 : 3.3㎡당 35만

행운(구 대창)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송창석 011-642-7777

특별 빌라분양 6세대

총분양가 530,000,000원

1세대 월세 보 2천만원, 월50만원

1세대 전세 보 7천만원

1세대 분양 1억1천만원 가능

1세대 용자 6천만원

1세대 | 전용 59.4㎡ | 분양 72.6㎡

◎ 위치 ◎ 광주 북구 운암동 140-22

투자까지 100% “강력추천”

다와옥션

☎ 062)232-9994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500만원정도

토지 가격 만도 7억5천만원정도

매매가격 8억8천만원

라멘조 층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